



교회의 역사 – 4. 박해

2025. 6. 22

1.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교를 위한 모임이 아니며,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세우기 위해 사도를 선출했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복음의 진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해졌고, 누구도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진리를 공유**했습니다.

3. **이방 선교는 특정 몇 사람이 아닌, 구원 받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전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죽음과 고통으로 위협하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1.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박해



1.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박해

황제의 거듭된 부인과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화재를 명령했다는 의심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배덕 행위로 시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혐의를 씌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따르는 소위 그리스도는 디베료 황제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다. 이 미신은 한동안 주춤했으나 곧 그 악의 발원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교들이 모여 들었던 로마에 다시 출현했다. 그리하여 스스로 기독교 인임을 고백한 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증언에 의하여 더 많은 신자들이 정죄되었다. **그 이유는 화제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인류를 증오했기 때문이다.**

1.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박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했다. 일부 신자들에게 털옷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고, 또 다른 신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했다. 또 다른 신자들을 불태워 밤에 등불처럼 밝히게 했다. 네로는 자기의 정원을 열어 이러한 쇼를 연출했고,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마치 전차 경주자처럼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돌아다녔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인들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갔기 때문이다.

2.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박해

공개적으로 로마의 신들과 황제에 대한 예절을 거부하는 자는 처벌 되어야 한다.

첫째, 법원의 권위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둘째, 황제에 대한 예배를 거부함으로써 그의 통치 자체를 거부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2.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박해

나는 당신들의 친절을 두려워하는데, 그 친절이 오히려 나를 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나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단지 기독교 신자라 불릴 뿐만 아니라 신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사랑이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썩을 양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의 보혈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맹수들의 이빨에 의해 제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밀입니다.

3. 시기(미움)에 의한 박해

- 그리스도인들은 홍수와 전염병의 원인이다
-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산다
- 그리스도인들은 유아를 먹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요 15:18-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4:12-13)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35-38)

죽음과 고통으로 위협하는 박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5-39)